

# 고대문화 및 융합 선진도시 탐방 국외연수

## 1 연수개요

<b>연수주제</b>	고대문화 및 융합 선진도시 탐방 국외연수		
<b>주관부서</b>	청소자원과	구성인원	11명
<b>연수기간</b>	2019. 5. 11.(목) ~ 5. 18.(금) <5박 8일>		
<b>연 수 국</b>	두바이, 그리스		
<b>연수목적 [필요성]</b>	고대문화 유적지 보전을 위한 시책과 신 융합 정원도시 발전방향 모색		

## 2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5. 11. (토)	인천	OZ601	23:55~	• 인천 → 두바이 출국
5. 12. (금)	두바이	현지차량	~04:25 05:30~07:00 09:00~12:00 13:00~18:00	• 두바이 도착 • 알 파히디(구 바스타키야)로 이동 • 셰이크 모하메드 궁전 견학 • 두바이 금융센터 및 모노레일 견학
5. 13. (토)	아테네	항공 현지차량	10:50~15:00 16:00~18:00	• 두바이 → 아테네 이동 • 고대 문화유산 견학
5. 14. (일)	산토리니	페리 현지차량	08:00~09:00 09:00~16:00 16:00~18:00	• 피레우스 항구로 이동 • 산토리니이동(약7시간소요) • 피리타운 및 이아마을 견학
5. 15. (월)	산토리니 아테네	현지차량 세페리	09:00~12:00 13:00~18:00	• 와인 박물관 견학 • 레드비치 견학
5. 16. (화)	아테네 아라호바	현지차량	08:00~16:00 16:00~18:00	• 아라호바로 이동 • 고린도로 이동
5. 17. (수)	고린도 아테네 두바이	현지차량	09:00~12:00 13:00~18:05 20:00~23:05	• 고린도 유적지 견학 • 고린도 운하 견학 • 아테네 공항으로 이동
5. 18. (목)	두바이 인천	OZ601	03:40~16:55	• 두바이 공항 → 인천 귀국

### ③ 방문지 정보

#### ○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개국 중의 한 나라로, 전에는 트루설오만의 구성국 중 하나였다. 두바이는 아랍어로 ‘메뚜기’를 뜻하며, 아랍 일대 대상들이 모여드는 중계 무역기지였다. 고온 건조한 사막기후로 모래바람이 불어온다. 종교는 약 7세기 경 이슬람교가 전해진 이후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후 무역으로 인해 유럽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었다. 16세기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하려는 포르투갈과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1833년 알 막툼(Al Maktoums)이 약 800여 명의 부족을 이끌고 아부다비로부터 독립하여 두바이에 새롭게 정착하였으며 이후 알 막툼 계가 두바이를 통치하고 있다.

#### ○ 그리스

정식 명칭은 그리스 공화국(Hellenic Republic)으로,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의 교차점에 위치해 유럽과 지중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국토 면적은 131,957km<sup>2</sup>로 산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1,076만 명(2012 현재)이지만, 오랫동안 해외로 이주한 그리스인이 그리스 국내 인구와 비슷할 정도로 많다고 한다. 수도 아테네는 그리스 정치·종교·문화의 중심지이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이곳에 살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98%가 그리스 정교를 믿으며, 제우스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프로메테우스의 손자, 헬렌을 조상이라고 여겨 자신들의 나라를 '헬라스(엘라스)', 그리스인을 '헬레네스(엘리네스)'로 부른다. 기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에는 온화하고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다. 1981년에 EU(유럽 연합) 회원국이 되었다.

### 두바이 [알 파히디(구 바스타키야)

부르 두바이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 지역인 바스타키야 올드 타운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최근에 관광객들에게 이 곳에 거주하는 부유한 상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새롭게 개발되었습니다. 바스타키야 올드 타운의 규모는 좀 작지만,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거닐다 보면, 전통 양식으로 만들어진 정원이 있는 가옥들을 볼 수 있으며, 현대적인 두바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스타키야 올드 타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천연 에어컨 기능을 하는 바람 탑이며, 바스타키야 지역에서 개조된 대부분의 옛 가옥들은 상점과 카페, 갤러리로 주로 바뀌었습니다.

### 두바이 [세이크 모하메드 궁전]

두바이 최고통치자인 세이크 모하메드가 거주하고 있는 궁전. 세이크 모하메드는 2006년부터 두바이 최고통치자의 자리에 올라 두바이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 두바이 [버즈 알 아랍]

아랍 전통 선박인 도우의 돛대 모양을 한 기하학적인 건물로써,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로 전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실과 침실이 복층구조로 분리된 초호화 호텔입니다.

1994년 해저 40m의 깊이로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321m 높이의 버즈 알 아랍은 에펠탑보다 더 높고,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보다는 불

과 60m 밖에 낮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 빌딩으로 두바이 Skyline의 랜드마크이자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표면은 두겹의 테플론 코팅이 된 유리섬유 직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테플론 코팅된 표면은 낮에는 하얀 색으로 눈부시며, 밤에는 무지개 빛을 놀라운 빛을 발산하는 캔버스로 사용되어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2002년 2월 시내 중심가에 설립된 금융 자유 무역지대입니다. 금융 허브를 꿈꾸며 세운 GATE라는 이름을 가진 DIFC 외관은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만들어진 'ㄷ'자 모양의 DIFC에서, 양 옆면은 돈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막혀 있으며, 가운데 통로는 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뚫어 놓았다고 합니다.

### 두바이 [모노레일]

바다를 매립해 지은 인공섬 팜 주메이라와 아틀란티스 호텔은 두바이 여행 중 인기 있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 위대한 인공섬과 궁전 같은 호텔외관을 함께 감상하며 창조력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지요.

모노레일은 팜 주메이라섬의 아틀란티스 호텔로 들어가는 교통수단이며 섬을 이동하면서 건축물들, 아름다운 걸프만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 그리스 [파르테논신전]

2천 5백여년의 시간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인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아테나에게 바친 신전이다. 종교적, 신화적, 역사적으로 아테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기념물로서 파르테논을 보지 않고는 아테네를 가지 않았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매끈한 기둥들은 성숙한 여인의 다리 같으며, 웅장한 크기는 건강한 남성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건축적 조화를 이룬다.



###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대부분은 중심지에 약간 높은 언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폴리스라고 불렀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도시 국가가 폴리스로 불리게 되어 본래 폴리스였던 작은 언덕은 ‘akros(높은)’라는 형용사를 붙여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크로폴리스는 수비하기 알맞은 곳이 선정되고 거기에는 성벽을 쌓았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본래 전사계층의 사회였으므로 자연히 방어에 적합한 지점이 선택되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폴리스의 수호신 등을 모시는 여러 신전이 세워져 도시국가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 각 폴리스에는 원칙적으로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지만 오늘날 아크로폴리스라고 할 때에는 아테네시를 가리킨다. 아테네시의 아크로폴리스는 동서 약 270 m, 남북 약 150 m로 서쪽의 올라가는 입구를 제외하고 다른 3방향은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다시 성벽을 쌓고 인공을 가해 방비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미 미케네시대부터 중요한 거점이었고, 페이시스트라토스·페리클레스 시대에 파르테논 등의 신전과 현문이 세워졌으며 언덕이 미화되어 아테네의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로마와 터키인 등의 지배를 받은 시대에는 언덕이 고쳐지거나 강화되기도 하였다. 19세기에는 중세 이후에 고쳐진 부분은 제거되고 언덕의 발굴도 행하여졌다. 198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 그리스 [올림픽경기장]

국립정원 끝에 위치한 이곳은 고대의 판 아테네 대축제가 열렸던 곳으로,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가 바로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알렉산더 출신의 대 부호인 아베로프가 사재를 털어서 고대 경기장과 같은 모양으로 재건했다.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 그리스 [국회의사당]

근대 그리스의 초대왕 오토의 왕궁이었던 건물. 19세기 신 고전주의 건축물. 인접하여 국립가든이 펼쳐져 있다. 국회의사당에는 근위병 교대식을 볼 수 있는데 오전 11시경 시작하지만 30분정도 일찍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 런던의 버킹검 궁 근위병 교대식 같지는 않아도 아기자기 하니 볼 만하다.

### 그리스 [산토리니(피리타운, 이아마을)]

산토리니는 ‘빛에 씻긴 섬’이다. 하얀 골목, 파란 교회당, 담장을 치장한 붉은 부겐빌레아마저 선명하다. 엽서를 보며 동경했던 바닷가 마을은 현실과 조우하면 더욱 강렬하다. 에게해의 탐나는 섬, 산토리니는 그런 눈부신 풍경을 지녔다.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이렇게 썼다. “죽기 전에 에게해를 여행할 행운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소설 속에서 에게해의 섬들은 현실을 꿈의 세계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400개가 넘는 꿈같은 섬 중에서도 단연 매혹적인 곳은 산토리니다. CF, 영화, 엽서 속의 모습은 소문과 상상 속에서 더욱 선명하다.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면 산토리니가 그중 하나다. 잔영의 9할은 섬 북쪽 끝 ‘이아’에서 채워진다. 누구나 꿈꾸던 산토리니를 담아낸 마을이다. 화산이 터져

절벽이 된 가파른 땅에 하얗게 채색된 가옥 수백 개가 다닥다닥 붙었다. 푸른 대문의 집들은 흰 미로 같은 골목을 만들고 그 끝에는 파란 지붕의 교회당이 들어섰다. 그런 교회 수십 개가 꽃잎처럼 마을을 수놓는다. 이아에서는 아랫집 지붕은 윗집 테라스가 되고 사람들은 테라스에 누워 에게해의 바람을 맞는다. 양증맞은 기념품 가게를 기웃거리거나 노천카페에 앉아 달달하고 차가운 프라푸치노 한 잔을 마신다. 골목을 배회하며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아의 석양이다. 해 질 녘이 되면 산토리니에 흩어져 있던 여행자들은 이아로 모여든다. 마을 너머 작은 섬 위로 해가 지고 붉은빛은 바다를 검게 물들인 뒤 하얀 마을 위에 내린다.

### 그리스 [와인 박물관]

산토리니의 와인은 극소량 생산으로 인해 외부에 잘 판매하지 않아 희소가치가 대단히 높다. 지중해 특유의 맑은 공기와 강렬한 햇살이 특징인 이곳에는 와이너리가 많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와인 박물관에서는 산토리니의 여러 와이너리에서 제조한 다양한 와인의 구입이 가능하며 입장료에 관람료, 와인 세 종류 시음, 오디오 가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리스 [고린도 유적지]

B.C. 146년 로마군의 침입으로 폐허가 된 고대 도시국가를  
B.C.44년 로마 황제 시저가 재건한 로마 시대의 유적이다  
코린트시에서 약 8Km 떨어진 아크로코린트 산기슭에 있다. 고린도 유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B.C.6세기경에 태양신 아폴론을 모시기 위해 건설한 아폴론 신전으로, 그리스 신전 중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다. 건축 당시에는 38개의 원주로 된 신전이었으나 현재는 7개의 원만이 남아있다.

#### 4 기대효과

○ 그리스의 고대문화 유적지 보전을 위한 시책과 신 융합 도시 두바이의 정원환경 등을 벤치마킹하여 문화적, 생태적 가치가 있는 정원도시 순천 모색